추천의 글

살다 보면 가끔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질 때가 있다. 이 책은 그런 나에게 '딱 그만큼의 긍정과 딱 그만큼의 용기'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딱 그만큼의 긍정과 용기'를 얻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_가수 백아연

'좋다!' 나도 모르게 글을 읽는 내내 '아, 좋다!'라는 말이 자꾸만 튀어나왔다. 그냥 흘려보내는 문장이 있는 반면, 꼭꼭 붙잡아 두고 싶은 문장이 있다. 붙잡고 싶은 문장일수록 마음을 꾸-욱 눌러 담았을 거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문장을 담는다. 마음이 듬뿍 담긴 문장을 마주한다는 건 외롭고 공허한 마음

을 든든하게 채우는 일일 것이다. 저자의 문장은 든든하다. 든든한 문장 덕분일까. 저자와 조금은 친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잊고 살았던 오래된 친구를 만난다면 이런 기분이 들까. 술을 좋아한다는 저자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전혀 관성적이지 않는 행복감에 휩싸여 말하고 싶다. '아, 진짜 좋다!'

_『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저자 김상현

누군가와 소통을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이다. 당연하겠지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다. 초시계처럼 돌아오는 마감을 버텨내는 일만도 지난했을 텐데, 작가는 1,500자 비좁은 공간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묵묵히 담아내 왔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데 묶으며 이제 독자에게 대화를 건넨다. 그래서 책을 덮는 끝엔 "나는…" 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진다. 함께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그런 이야기.

_ 동아일보 기자 이원주

낡은 서랍 속 다이어리를 돌고 돌아, 늦은 퇴근길 순두부 한 그릇을 건너, 우리 엄마의 하루에 다다르면 그제야 안다. 행복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지나온 곳들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머무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 어여쁘고 뭉클한 것들을 바라볼 용기만 내면 된다고, 당신은 그럴 수 있다고, 작가는 우리에게 말한다. 3주에 한 번 신문 독자들에게 위로를 주던 작가의 글이 더 많은 이들의 손에 쥐어질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_ 동아일보 기자 이은택

작가의 말

✳

대체로 불행해도 결국 행복해지기 위한 성질

✳

✳

감정의 역치가 낮다. 쉽게 울고 쉽게 웃는다. 쉽게 불행해하고 쉽게 행복해한다.

어느 날엔, 사는 게 버겁다. 한다고 해 왔는데 과연 맞게 해 온 걸까. 지금껏 내려온 모든 선택들이 의심스럽다. 툭 치기만 해도 눈물이 터질 것 같고, 끝도 없는 바닥으로 침잠한다. 고백하건대 사실 많은 날들이 이러하다. 감정의 비중으로만 행복을 정의하자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불행한 사람들이다.

대체로 불행하다. 하지만 그건, 삶이 지닌 기본

속성이 아닐까 한다. 불안, 우울이 삶 그 자체라면 행복은 이벤트에 가깝다. 때문에 영속적 행복의 상태란 영영 달성할 수 없는 무엇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지막 마음, 하루 또는 한 생애 분의 단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이다.

불행한 일이 많았던 날엔 좋아하는 일을 해 행복의 영점을 맞춘다. 아끼는 차와 함께 읽고 싶었던 책을 보거나, 내일이 없을 것처럼 뛰거나, 집 앞 곰탕집에 혼자 슬리퍼를 끌고 나가 소주를 곁들이기도 한다. 가끔은 미친 척, 좋아하는 사람과 다음 날 오후 반차를 신청하기도 한다.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해 버릇하지 않으면 내일도 행복에 실패할 것을 알기에, 스스로를 기쁘게 만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다고, 다 잘될 것이라고, 불행이 열거된 하루의 끝에도 기어코 '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을 더해, 대체로 불행하더라도 끝내 행복해지고야 만다.

우연한 행복은 무르다. 타의에 의해 쉽게 망가지고, 스스로도 확실하게 손에 쥘 수 없다. 때문에 나는 보다 적극적이고 단단하게 행복하려 한다. 삶의 디폴트 값으로 불행을 이해하고, 오늘 나의 최종 기분으로 행복을 선택하는 것. **이러한 날들이 쌓이면 마침내 행복은 '관성'이 된다. 종래에는 반드시 돌아가고야 마는 최종적 감정 상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복에 진심'이게 된 데에는 응당 계기가 있으리라.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근본적인 것과 결정적인 것.

근본적인 계기는 아마도 오래전 가족에게 있었던 사고일 것이다. 가족의 상처를 매개로 공감을 얻는 일이 내키지 않아 굳이 써오지는 않았지만, 빼고는 어쩐지 설명이 불충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이 책의 전사 격인 사연을 짧게나마 덧붙인다.

중3 때였다. 동생 생일 전날, 하굣길 집 앞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오는 엄마를 만났다. 아빠가 '조

금’ 다쳤다며 금방 돌아오겠다던 엄마는 그날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미역국도 못 먹고 풀죽어 등교하는 동생 모습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을 냈다. 대꾸도 없이 듣고만 있던 엄마는 미안하다고만 했다. 그날 저녁, 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고가 있었고, 위독하다 했다. 우연한 사고에 이유가 있을 리 만무하지만 계속 “왜?”하는 질문만이 맴돌았다. 우리 아빠가 왜? 불과 그저께, 우리와 함께 동생 생일 파티 계획을 짜던 아빠였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다정하던 아빠였다. 울다 지쳐 잠이 든 다음 날 아침, 나쁜 꿈을 꾸고 일어난 듯했다. “아빠!” 하고 부르면 저쪽 방에서 두 팔을 벌린 아빠가 걸어 나올 것만 같았다. 단축번호 3번을 꾸욱 눌러 보았지만 “전원이 꺼져있어…”라는 음성만 야속하게 흘러나올 뿐이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한 달 가까이 생사를 오가던 아빠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사

건'이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일 이후 서로가 건강한 오늘에 그저 감사하게 되었다. 이후 나는 '설마'하는 유의 모든 일들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당장 내일 내가 사라지더라도 사실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실감했다. 상극인 듯 닿아 있는 '죽음'과 '행복'의 존재를 동시에 의식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일종의 임사체험이었다. 상투적이지만 절대적인 메시지의 체화. 오늘 살아있음에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고,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룰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더 쉽게 행복해졌고, 더 적극적으로 행복하기로 했다.**

보다 결정적 계기는 역시 이 책의 근간을 이룬 칼럼 연재이다.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동아일보 〈2030세상〉 지면에 칼럼을 연재해 오고 있다. 정제된 매체에 정해진 형식으로 꽤 긴 시간 글을 써오다 보니, 1,500자 5~6개 문단으로 사고가 재단되고 글이

패턴화되는 것이 느껴졌다. 나아가 각각의 글이 독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하는 칼럼의 특성상, '기-승-전-긍정'으로 매듭짓는 습관도. **세포 어딘가에 끝내 긍정으로 향하려는 관성 같은 것이 새겨져 버린 것 같았다.**

'행복해지려는 관성'. 제아무리 벅찬 하루였대도 마지막에 '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을 하나 더 하는 일. 딱 그만큼의 긍정과 딱 그만큼의 용기면 대체로 충분하다는 것을 칼럼 쓰기를 통해 아로새겼다. 각각의 모든 글은 일말의 거짓도 없이 진심이었다. 다만, 진심에도 구획이 나누어져 있다면 가장 밝은 쪽, 가장 낙관적인 쪽의 진심이었다.

그리하여 이 책이 만들어졌다. 연재했던 글 중 일부를 선별하고, 몇 편의 새 원고를 더해 단행본에 맞도록 수정하여 엮었다. 이미 쓰인 글 간의 관계를 귀납적으로 밝히고 목차를 구성해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다 발견한 분명한 맥락은 결국 이 관성을 체화하기까지 나름대로 애

써 온 과정을 끈질기게 말해오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각 장은 '행복해지려는 관성'의 체득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다. 이를 통해 결국 **행복은 노력을 통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 '발견'하고 단련을 통해 '유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나누고 싶었다.

이 책이 자신만의 '행복해지려는 관성'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연습장으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 중간중간 충분한 여백과 질문, 답변란을 두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책을 덮는 끝에 독자 스스로가 제아무리 벅찬 하루였대도 마지막에 '그래도'로 시작하는 문장 하나를 더할 수 있기를, 딱 그만큼의 긍정과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감히 희망한다. 부족한 생각이 당신께 닿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동아일보'와 '필름출판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에밀리 디킨슨은 "지상에서 천국을 찾지 못한 자는 하늘에서도 천국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도 습관이라고들 한다. 더 나아가 행복은 관성이 되어 마땅하다. 보다 본질적인 속성으로 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 고작 책 한 권, 고작 밥 한 끼, 고작 문장 하나로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보다 견고한 행복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자주 울더라도 결국 웃게 될 것이다. 대체로 불행하더라도 결국 행복해질 것이다. 단언컨대, 고작 _____ 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그 멋진 일이, 당신께도 깃들길, 아니 당신이 선택하길,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2021년 8월

김지영

차례

Part 1

발견하기

별것 아닌 일상일지라도 '그래도'

엄마의 취향, 하루, 꿈

선택 위임

각자의 계절

벚꽃 네버 엔딩

즉흥예찬

가끔씩 오래 보자

토요 성수: 일상 여행법

일상 속 소소한 서프라이즈

Free Internet 말고, Internet Free

To send, or not to send?

막상 해 보니 '별거'인 것들

시간에도 여백이 필요하다

시작증후군 환자의 고백

일일 배우 학교에 다녀와서

있는 그대로의 내 얼굴을 사랑하는 법

추억에 안부를 묻는다

타인의 공간

어차피 헤어질 거라면

Part 2

정의하기

내 식대로의 행복

다시 쓰는 백문백답

당신을 정의하시오 (*200자 이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돈 버는 일

그 많던 꿈들은 어디로 갔을까

MBTI 지표 너머 필요한 것은

‘○○척’의 힘

힙하지 않아도 괜찮아

혼밥은 죄가 없다

퇴사하면 행복할까

한 우물만 파야 할까

30대의 하루는 40대의 4.3일

그냥 내일 뛰면 안 되는 걸까

집밥 판타지

여행조차 잘해야 할까

임아, 갠지스를 건너시오

히말라야에서 만난 태초의 행복

Part 3

유지하기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칼럼을 쓴다는 것

에고 서핑

버리기가 주는 위안

당신의 일상을 바로잡는 힘

달리기의 맛

달리기의 맛, 그 후

기록 병 환자의 고백

루틴의 힘

가을 경주, 작은 사치

바로 지금 여기

나의 첫 '혼소주'

서로에게 귀한 여행자이고 싶다

슬픔의 연대

수다의 힘

오해의 역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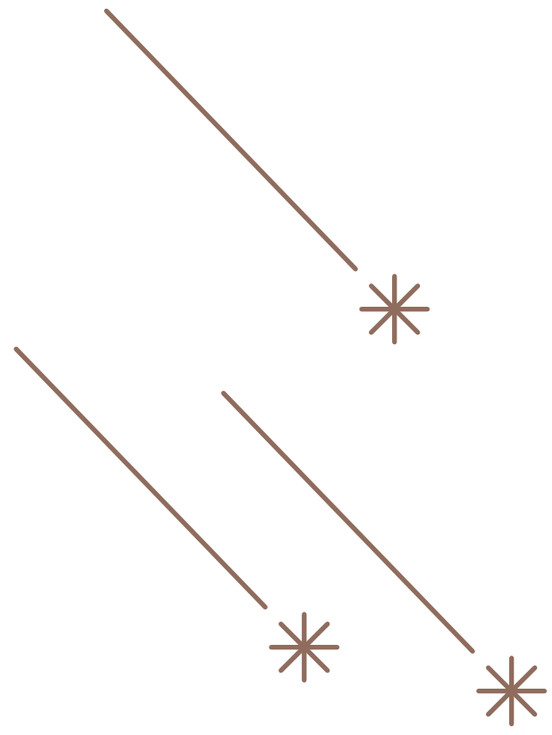
마음 방학

Part 1

발견하기

별것 아닌
일상일지라도 '그래도'

엄마의 취향, 하루, 꿈



결혼 전 엄마와 둘이 터키 여행을 다녀왔다. 미혼 딸로서는 마지막으로 오붓하게 엄마와의 시간을 누려 보기 위해서였다. 여행을 준비하고 다녀오고 곱씹는 일련의 과정에서 생전 '엄마'라는 단어 뒤에는 붙여보지 않았던 낯선 단어 몇 가지를 떠올렸다. 취향, 하루, 꿈.

국가를 고르는 것부터 루트, 상세 일정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어려운(?) 것이 없었다. 가령 이런 식이었다. "엄마,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 "엄만 우리 딸이랑 함께라면 어디든 다 좋아." "엄마, 이

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땡겨?” “엄만 다 좋아.” 취향이 없는, 혹은 있어도 쉬이 말하지 못하는 엄마가 늘 답답했다. 엄마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는 것도, 엄마가 하고 싶을 만한 일을 찾아 함께하는 것도 으레 딸들의 몫이었다. 엄마 세대 엄마들은 다 그런 걸까. 형제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해 버릇한 대가로 엄마는 욕심과 함께 취향을 잃어버린 걸까. 아니 만들 기회조차 없었던 걸까. 취향이라는 게 그렇다. 일종의 버릇이라, 내 맘 가는 대로 안 해 버릇한 이에겐 생기지조차 않는다. 그래서 엄마의 ‘다 좋아’는 나를 아프게 했다.

열흘간의 여행을 마칠 때 즈음 또 하나의 아픈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단 한 번도 엄마의 24시간을 온전히 지켜본 적이 없었다. 항상 나는 어딘가를 가고 엄마는 그런 나를, 우리를 기다렸다. 하루 일과를 시시콜콜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쪽은 항상 엄마였지, 우리가 아니었다. 딸 셋의 하루가 끝날 때 엄마의 하루가 끝났다. “엄마, 우리 내일은 늦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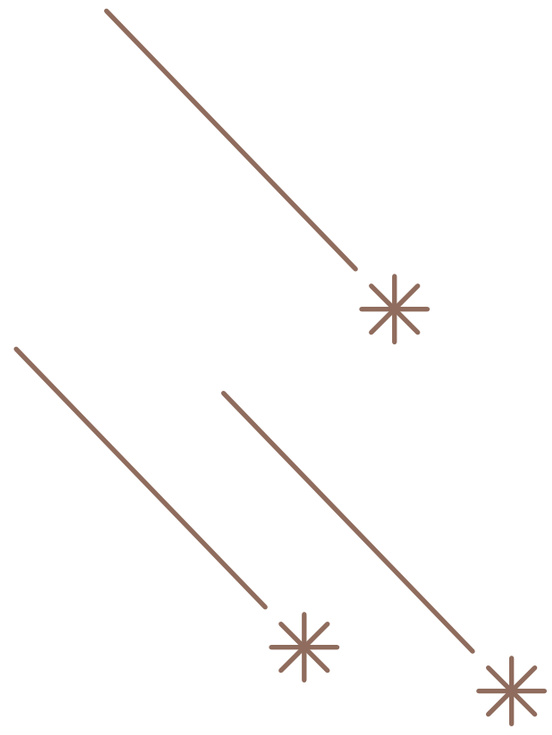
자자”가 갱년기로 잠을 설치는 엄마에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번 끼니마다 약을 챙겨 먹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엄마가 얼마나 자주 가족 단톡방을 들여다보는지, 엄마가 나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는지, 11시간의 비행과 10시간의 야간버스를 거치고 나서야 알았다. 미처 궁금해하지 못했던 엄마의 시간들이 죄스럽게 다가왔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엄마의 마음은 한동안 터키에 머물러 있었다. 가만있다가도 “터키가 너무 좋았어. 진짜!” 하시기를 수차례. “나 다시 글을 쓰고 싶어졌어”라고 말씀하셨다. 가슴이 덜컹거렸다. 낯선 경험, 낯선 설렘이 다시 마음을 간질인 것이리라. 엄마는 마흔에 등단을 했었다. 열세 살이던 그땐 ‘늦은’ 나이에 참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지금의 나와 고작 몇 살 차이. 내 나이, 내 서른만 특별했지 엄마의 나이에는 무감각했다. 내 꿈만 중요했지 엄마 혹은 아빠라는 단어는 꿈이라는 뜨거운 단어와는 멀게만 느껴졌다. 엄마에게는 오랜 기

간 간직해 온 꿈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마흔이. 딸 셋과 씨름하느라 감수성에 젖을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피우다 만 불씨가 살아 있었을 것이다.

이후 부족하지만 무던히 엄마의 취향을 찾고, 하루를 알고, 꿈을 응원하고자 했다. "엄마, 다 좋아 말고 하나만 골라봐." "엄마, 오늘 하루는 어땠어?" "엄마, 이 책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남은 그녀의 삶은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기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디 다 좋지 말고, 아빠 퇴근과 딸들 전화, 손주들 사진만 기다리지 말고, 예순이 다 돼서까지 가슴이 뛰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무엇보다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오래오래 행복하자, 우리.

선택 위임



오늘 지하철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출구 계단을 향해 개찰구에서부터 긴 줄이 무려 한 줄로 이어져 있었던 것. 에스컬레이터도 아니고 폭이 꽤 넓은 계단이었는데, 사람들 질서 의식이 대단하다 싶었다. 그들 중 몇몇은 앞을 쓱 보고는 갸우뚱해했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며 줄을 지키는 듯했다. 순간 깨달았다. 이들을 줄 세운 것은 질서 의식이 아닌 다수의 선택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선택 위임이라는 것을.

낯선 광경은 아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선택 위임

을 왕왕 마주한다. 언젠가 공연을 보고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더니 남편이 반대쪽에도 있을 거라며 나를 이끌었다. 아니나 다를까.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버린 것이다. 설마 이렇게 가까이에 다른 화장실이 있는데 줄을 서 있을 것이라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몇 해 전 남편과 속초 여행을 갔다. 유명하다는 새우튀김 골목에 갔는데 유독 한 집 앞에만 줄을 서 있었다. 검색해 보았지만 특별히 유명한 가게는 아닌 것 같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나긴 기다림의 대열에 합류했다. 줄 서는 집에 대한 공연한 신뢰 탓이었다. 결과는 갓 튀긴 새우라면 느낄 수밖에 없는 예상 가능한 맛있는 맛이었다. 그 골목 어느 집에서 먹었어도 비슷한 맛이었으리라.

돌아보니 이 또한 선택 위임이었다. 아마 처음에는 우연히 두어 명이 앞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우리처럼 공연한 믿음으로 뒤에 섰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뒤에 섰을 것이다. 그리하여 줄줄이 앞에 선 이에게 자신의 선택을 위임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뜻밖의 선순환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비단 이 가게뿐이 아니라 종전의 화장실, 지하철 계단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어쩌면 선택 위임의 메커니즘은 우리 생활에서 생각보다 넓은 영역을 관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선택 위임 중 제일은 아마 삶의 주요 미션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대입, 취업, 결혼, 출산—로의 줄 세우기가 아닐까. 나만 해도 주도적으로 해온 선택들이라 믿지만 착실히 그 길을 따라왔다. 고3 수험 생활을 거쳐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다. 5년 만난 애인과 결혼을 했고 어느덧 마지막 미션만을 남겨 놓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인사치레로 자녀 계획을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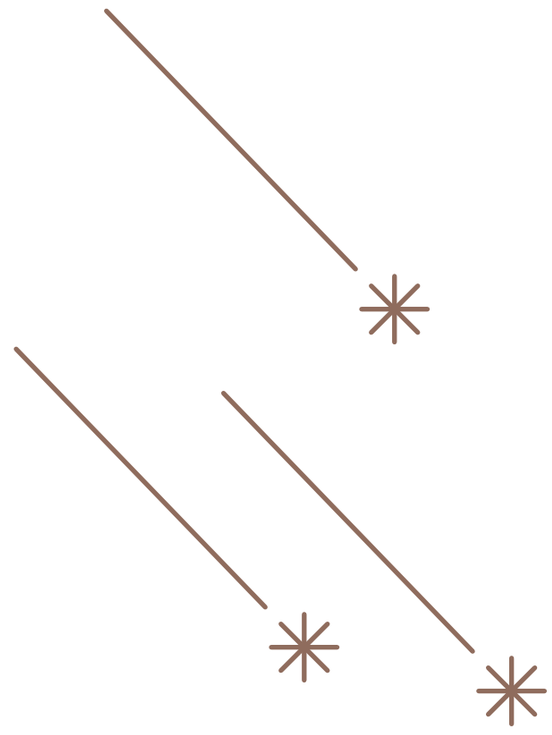
순서의 역행은 선택지에 없어 보인다.

이 미션까지 완수하면 나는 줄 서지 않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분명 영어유치원으로 시작해서 내 집 마련으로 끝나는 또 다른 대열이 손짓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나는, 우리는 과연 그 대열을 쉽게 못 본 체할 수 있을까. 다수의 타인들에게 선택을 위임하지 않고 오롯이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아니, 그 길을 따라 걷는다 한들 그 끝에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한 것일까.

오늘 광경을 보고 새삼 다짐한다. 앞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을 보고 이 길이 맞다 믿어버리지 말자. 고개를 내밀어 보고, 이탈해 걷기를 겁내지 말자.

길의 끝에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저마다 다르다.

각자의 계절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4월 중순. 이맘때 지하철을 타면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볼 수 있다. 니트에 얇은 패딩까지 덧입은 사람과 반팔 입은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분명 같은 시공간임에도 두 개의 계절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그 와중에 나는 꿋꿋이 패딩을 챙겨 입은 이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다. 절기상으로는 분명 봄인데 여전히 한기가 느껴지는 시기, 출근을 준비할 때면 옷장 앞에서 고민에 빠진다. 외투들을 훑

어보고 집어 드는 짧은 시간 동안, 육체의 안녕과 마음의 평안이라는 두 욕구 간 작은 교전이 벌어진다. 통상 승기를 잡는 것은 후자이다. '4월에 패딩이라니. 이상하게 보일 거야.' '점심 먹으러 나갈 때 회사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겠지.' 따위의 염려들이 추동하고, '에이, 오늘은 괜찮겠지 뭐!' 하는 낙관이 쐐기를 박는다. 패딩으로 향하는 손을 거두고 얇은 재킷을 챙겨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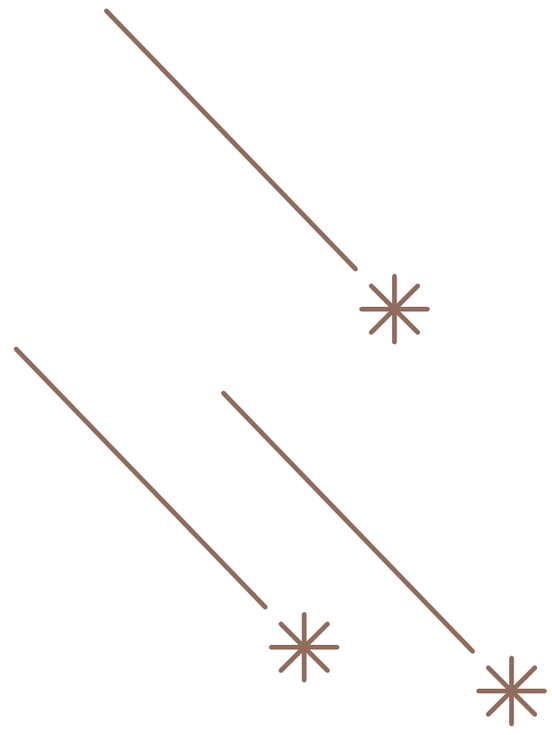
하지만 싸늘한 바깥공기를 마주하는 순간 여지없이 후회하고 마는 것이다. 종일 벌벌 떨다가 결국 다음 날 몸져누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몸소 체득한 이 단순한 진리를, 나는 거의 매번 망각한다. 바들바들 떨 때만 해도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막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그래도 그건 좀' 하며 남 눈치를 보는 것이다. 고작 외투 하나 고르는 일이 이렇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계절이 있다. 같은 온도, 같은 바람도 저마다 체감이 다르므로, 누군가에게는

이미 온 계절이 누군가에게는 아직일 수 있다. 반팔 입은 사람에게는 이미 온 여름이 패딩 입은 사람에게는 한참 아득하듯. **무리해서 타인의 계절에 맞추었다가는 병이 나기 십상이다.** 그 대가가 고작 감기 정도라면 차라리 다행일까. 남 눈치를 보느라 생의 크고 작은 관문과 선택에서 내 계절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계절에 맞춘,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

오늘도 내게는 바람이 차다. 아무래도 나의 봄은 좀 더 더디게 오려나보다. 내일은 꼭 패딩을 입을 것이다. 그럼 내가 그랬듯, 나의 패딩에 용기를 낸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계절을 찾아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고작 외투 하나로, 각자의 계절을 찾아가는 '4월 패딩 연대'가 이루어질지도.

벚꽃 네버 엔딩



바야흐로 벚꽃 시즌이다. 연이어 최고 기온이 20도가 넘으면서 때아닌 이른 개화를 맞았다. 아직 변변한 나들이 계획도 못 세웠는데 행여 져버릴세라 너도나도 분주히 집을 나선다. 나 역시 요 며칠 점심을 먹고 카페로 들어가는 대신 캔 커피를 사 들고 회사 앞 벚꽃 길을 걸었다. 곧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 그 전에 조금이라도 더 눈에 담아 두고 싶었다. 오늘도 연신 사진을 찍으며 "아, 좋다"를 연발하고 있는데 저 멀리 교복을 입은 한 무리의 학생들이 다가왔다. 수업이 일찍 끝난 것인지 점심 탈출을 감행한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그들

역시 “아, 좋다”를 연발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른 벚꽃이 이들에게는 행운이겠구나 싶었다.

학생 시절 때맞춰 피는 벚꽃은 늘 야속한 존재였다. 벚꽃이 피었다는 것은 중간고사가 다가온다는 징표였고, 채용 시즌이라는 엄포였다. 온전히 꽃구경만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할애하는 벚꽃 ‘놀이’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다. 화려하게 핀 꽃을 즐기는 것이 내겐 허락되지 않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돌아보니 안쓰럽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의 나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땐 그랬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봄을 시험지와 자기소개서와 씨름하며, 벚꽃을 외면하며 났다. 수험생 시절을 버티고 취준생 시절을 견디어 흔하지만 간절했던 직장인이 되었다. 합격만 시켜주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던 그 옛날의 취준생은 기억에서 지워낸 지 오래이다. 나이만 먹었지, 크게 나아지지 못한 내공으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가끔 버겁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러하듯 진로, 적성

고민조차 현재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최소한 꽃구경할 정도의 여백은 생겼다는 것이다. 똑같이 5분을 눈에 담더라도, 종전의 죄책감과 조급함 대신 황홀함과 충만함으로 온전히 그 시간을 물들일 수 있다. 25년 치의 봄을 눈에 담으려면 마음이 참 바쁘다.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는 계절의 황홀함을 즐기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관광객들의 상기된 표정이 다른 세상의 일 같고, 달뜬 꽃내음이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시기의 이들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내게도 다시 그런 계절이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조악하지만 진심이 담긴 고3 때 쓴 시를 그들과, 훗날의 나와 함께 나누고 싶다.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밤 공기가 차다/ 길게 줄지어 늘어선 가로수들 사이로/ 갓 피어난 벚꽃들 하늘과 맞닿아 하얀 눈물로 엉기어 있

다// 흩어진 별들도 오소소 떠는데/ 엄습한 찬 공기에 놀란 가슴 달래보고자/ 집으로 가자 발길을 재촉해 보아도/ 도무지 내 갈 길은 보이지를 않는다// 까마득하게 높은 봄 향기에/ 그만 정신이 다 아찔하여/ 가장 낮은 곳 쥐똥나무 울타리에 지친 마음 기대 서 본다//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봄, 이 봄/ 고개를 들자 쥐똥나무야/ 벚꽃의 화려함에 기죽지 말자/ 잔인한 이 계절 한껏 앓고 나면/ 그 가을 앙상한 뼈만 남은 벚꽃나무 아래 너는/ 보석보다 찬란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봄/ 2007년 이 봄 —고 3, 그 해 봄

곧,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내년에도 어김없이 봄은 온다.

BEST REVIEW

베스트 리뷰

독자가 말해주는

〈행복해지려는 관성〉을 읽어야 하는 이유!

| REVIEW |

끊임없는 단련을 통해 '바로 지금 여기서' 단단한 행복을 유지함으로써 마침내 새겨지는 '행복해지려는 관성'을 설명하는 대목이 인상적이었고 책 제목의 의미를 그때야 깨닫게 되는 희열을 느낄 수도 있었다.

특히 마음 방학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은 당장에 실천해 옮기고 싶었다. 마음 방학은 생의 주인공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기대와 의무를 의식적으로 거두어 내고 작은 판단부터 온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려 봄으로써, 생활의 부침에 이리저리 틀어진 행복의 기준점을 다시 나로 맞추는 일이다. 이 간헐적이고 사소한 이기적 선택들이 모여 삶의 행로를 조금 더 '나의 행복'을 위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나갈 것을 믿는다.

인스타그램 @ggusssy 님의 리뷰

김지영 작가만의 행복의 궁금증을 품고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다. 자신의 연대기 속에 특별한 일들이 전시되어 있지만 결코 쉽게 읽어 내려가야 할 글들이 아니라는 거를 또 한 번 상기시켜 준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평범한 일상에는 지치고 힘든 감정이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런 무기력한 나날들이 이어지는 와중에 김지영 작가는 우울의 창문을 깨고 그 틈을 비집으며 행복의 정의를 발견하려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기도 했다.

포착되었던 글들은 확고한 성격과 새로움을 지향하는 장면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해줄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를 해결점으로 승화시키기도 하는데 유대관계, 사회성 등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자신만의 방도로 해결의

마침표를 남기는 장면도 속출한다.

누구나 행복에 대한 기준과 정의는 다르다. 그렇지만 〈행복해지려는 관성〉의 책을 쓴 저자의 행복은 딱 그만큼의 내용 전달을 해준다. 나쁜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딱 그만큼의 선은 행복의 감정과 행복의 방법이 교차점으로 만난 지점이라 볼 수 있다. 그만큼 뜻깊은 책이라고 감히 말한다.

행복은 유지하기 어렵다. 어렵지만 순간은 만들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우린 바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도 당신에겐 화창한 날들이 무수히 많으니.

블로그 북규 님의 리뷰

https://blog.naver.com/gngn3660/222480084427?isInf=true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 자신만의 단단한 행복을 발견하고 싶은 당신에게

- 대체로 불행하더라도 결국 행복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싶은 당신에게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도서를 읽어본 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100% 환불해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필름북〉에서 확인하세요!